

防災의 再認識

理事長 李大鎔



人類는 불로 부터 無限의 惠澤을 받아 왔으나 反面, 關心의 소홀과 不注意로 인하여, 무서운 災害를 끊임없이 받아왔고 지금도 火災는 설 새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記錄을 펼쳐보면, 1666년, 영국 런던의 大火災는, 세계 굴지의 이 大都市의 4분지 3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火災史를 보더라도 1971년 12월 25일의 대연각의 화재는 人員 死亡 163명, 부상 63명, 財産 8억3천만원의 被害를 가져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후인 1972년 12월 2일에는 서울市民會館에서 화재가 발생, 53명이 死亡하고, 76명이 부상을 입고 재산 2억5천만원의 被害를 입었습니다. 今年에 들어와서도 불과 6개월간에 中型以上の 火災가 우리나라에 25건이나 發生하여, 死亡 39명, 부상 14명, 재산 48억원의 被害를 보았습니다.

文明의 利器의 發達에 따라 火災로 부터 받는 피해의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對處해 나가야 하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研究課題로 되어 있습니다.

이 研究課題를 解決하는 하나의 方便으로 본協會에서는 「火災安全點檢」誌를 내고있습니다. 여기에 실려있는 여러 內容은 先進外國으로 부터의 防災 資料蒐集과 情報交換등에서 얻은 知識과 國內 斯界의 權威者들이 研究開發한 多様な 資料를 수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安全點檢을 위시한 防災業務에 크게 貢獻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機會에 또 하나 言及하고 싶은 것은, 火災의 現場에서 火魔와 煙氣속을 뚫고 들어가 人命을 救出해 내고, 財物을 搬出해 내는 것도 重要하지만, 安全點檢으로서 火災를 事前에 豫防한다는 것은 이보다도 더욱 重要하다는 것을 強調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火災의 現場에서의 일꾼들이 新聞을 포함한 매스컴에서 脚光을 받고, 온 국민들이 이들의 勞苦를 위로 한다면, 安全點檢要員들도 이와 同等하게 매스컴의 사랑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勞苦를 致賀 받아야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國民들의 認識은 이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安全點檢을 無料로 받는 것조차 忌避하는, 建物이나 施設의 所有主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認識不足은 하루속히 是正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安全點檢에 從事하는 要員들과 기타 防災業務에 從事하는 要員들은 自己들이 遂行하고 있는 業務가 얼마나 重要한가에 대한 價値認識을 새로이 하고, 矜持를 가지고 業務遂行에 對한 倍前의 努力 있기를 바랍니다.

누차에 걸쳐 다시 말하거니와 火災는 鎮壓이나 復舊보다도 豫防이 더욱 重要하다는 것을 再認識하고, 安全點檢과 이에 따른 是正이 至善의 防災對策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